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언약 역사에 대한 교훈 [사사기 11:12-29, 32-33]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14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15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18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 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20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22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2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24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25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툼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지 삼백년이어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28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뎀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기적들.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간을 내어 이것들을 기억합니까?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전과 신실함의 하나님. 이것이 입다의 선포입니다! 배경: 군대와 마주한 하나님의 적: 암몬에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와 싸우려하는가?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합니다. 두 가지 상반된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마찬가지로: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입다는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약 역사의 진실에 근거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부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선포하며 구원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하며 진실로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사가 한 세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상대편 세력이 압도당하는 사건이라는 것과 같이 단순히 무작위로 선택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국가의 진로를 정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입다의 반응은 속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세요! 신학을 확인하세요!**

논리를 확인하세요! 사실: 이스라엘이 사막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에돔과 모압의 토지 권리를 신중하게 존중하여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두 나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하지 않고 돌아가 아모리 민족의 왕 시혼에게 같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민족의 왕 시혼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군대를 데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고 이스라엘은 아모리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모리 영토는 암몬영토와 국경을 공유했지만,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 중 어느 것도 암몬 영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신학:**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적의 영토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신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훼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리:** 3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에 공소시효가 존재합니까? 그들의 주장이 진짜였습니까? **그러므로 재판관이신 주께서 이 분쟁을 해결하소서!** 누구의 신이 더 강한가? 또 다시 신의 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신을 따를 것인가!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해 온 거짓 신들 간의 만남!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한가.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몬은 지고 하나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체제가 여전히 갈등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우연 또는 무작위 사건으로 봅니다. 우리의 삶은 실제로 이 사실을 반영합니까? 결국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냐고 귀결됩니다.